

안동 농어촌공사, 농업용 안전예방용품 지원

백한철 기자 cowspig@ksmnews.co.kr 입력 | 수정 2026.09.09 20:39



농어촌공사 안동지사 제공



농어촌공사 안동지사 제공

[경상매일신문=백한철기자]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는 9월 8일 늦더위 속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안동시4-H연합회에 농작업에 필요한 안전예방용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늦더위와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지역 농업인들의 건강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농업인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농촌 현장의 안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전달된 물품은 안동시4-H연합회를 통해 야외 농작업에 종사하는 청년 농업인 및 지역 농가에 전달되어, 햇볕과 무더위에 대응하는 안전용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승표 안동지사장은 "농업인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하게 영농활동을 이어가는 데 이번 물품이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